

# 우승희 영암군수, '최고멜론' 엄지척

###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멜론 재배 하우스 수확현장 방문 재배현황 점검·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 시간 가져



영암군은 군 대표 특화작물인 영암멜론(K멜론)의 첫 수확을 맞아 지난 21일, 우승희 영암군수가 도포면의 한 멜론 재배농가를 찾아 생산현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우 군수는 전반적인 멜론 재배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농가와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폭넓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영암에서 선보이고 있는 'K멜론'은 국내뿐 아

니라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국내 최고의 고품질 멜론으로, 기존 출하시기는 5월 중순이었으나 다경보온커튼과 난방시설 도입 등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수확시기를 45여 일 앞당기며 지난 20일째부터 생산출하되고 있다.

영암 지역의 풍부한 일조량과 최적의 생육환경 속에서 재배된 조기출하 멜론의 당도는 13브릭스 이상으로 풍부한 즙과 높은 당도를 확보, 정가수의 거래 방식으로 정식 출하시기

보다 높은 출하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암군에서는 51농가가 37ha에서 멜론을 재배하고 있으며,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를 통해 균일한 맛과 품질, 안정적인 생산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군은 지난 3년간 93톤 3억 1천만원 상당의 멜론을 수출하는 등 국외 마케팅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는 5억원 수출을 목표로 외국바이어와 본격적으로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설원예 등의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병해충 및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원에 및 노지재배 농가에 보조금 3억원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은 조기재배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농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멜론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와 지속적인 조기재배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멜론의 안정생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멜론이 우리군 지역특화 작물의 대표주자이만큼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빼어난 자연조건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해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최고의 멜론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 소중한 농산물 내가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

### 무안군, 농식품 실시간 소통 판매 교육 성료

무안군에서는 농식품 홍보·유통·판매 교육(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 6회에 걸쳐 농산물종합기공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과 농산물가공업체가 겪고 있는 홍보·유통·판매의 어려움 해결과 전자상거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론과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마지막 날에는 예행연습과 생방송을 통해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실습을 했다. 16명의 교육생 중 15명이 수료했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정해진 스튜디오가 있어 야만 방송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농장, 가공사업장 등 어디에서나 소중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직접 생방송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생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교육이었다.

교육생 주금순 씨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운 마음으로 교육을 받았고 내가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시작했지만 실습과 예행연습 그리고 생방송을 진행해 보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었다"고 전했고, 반정숙 씨 또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훨씬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 28일 개장

### 꽃 33종 40만본 전시...나비날리기 등 체험 풍성



봄꽃 축제의 대명사 격인 '함평 나비대축제'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 손님을 맞이한다.

함평군은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를 주제로 제25회 함평 나비대축제를 오는 28일부터 5월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장식은 28일 오전 9시 야외 나비날리기로 진행한다.

이번 나비대축제에서는 사피니아 등 33종의 다채로운 꽃 40만본과 다양한 나비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풍성한 체

험 프로그램까지 마련돼 관람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어느 때보다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끈다. 엑스포공원 중앙광장에서는 야외 나비날리기 체험, 풀잎 나비·곤충만들기, 생태습지에서 미꾸라지 잡기, 귀염뽀짝 동물과 친구되기, 쫄쫄목장 놀이, 보리·완두콩 그스름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야외 나비날리기는 선착순 번호표를 배부하며, 유아·어린이 동반 가족(회당 50팀)을 대상으로 축제 기간 평일 1회(오후 2시), 주말 2회(오전 11시·오후 2시) 진행한다.

축제기간 KBS전국노래자랑 함평군편 녹화도 예정되어 있다. 예선 심사는 5월4일 오후 1시 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1·2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5팀을 선발한다. 본선 녹화는 5월6일 오후 3시 나비대축제가 열리는 함평자동차극장 특별무대에서 한다.

같은 날 '미스터트롯'으로 스타덤에 오른 가수 장민호도 5월6일 오후 1시 중앙광장 주무대에서 축하공연을 펼친다.

함평=김광훈기자

##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

### 금회 9개소 확대 지정으로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비 등 지원

목포시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9개소 추가(확대) 선정했다고 밝혔다.

착한 가격업소는 고물가 상황에서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가격, 위생, 이용 만족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시는 착한가격업소 추가 발굴을 위해 지난 달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와 심의를 거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9개소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 착한가격업소는 기존 19개소에서 28개소로 늘어났다.

'착한가격업소'로 추가 지정된 9개소(외식업)는 지정서 및 인증표찰 교부받게 되며, 시 홈페이지와 시 공식 SNS 등을 통한 홍보 업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맞춤형 물품 구입 등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목포=기동채재본부

## 신안군 '피아노의 섬' 프로젝트 10월로 연기

신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한 자은도에서 아름다운 피아노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피아노의 섬' 프로젝트를 5월에서 10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기존 5월 중 2주간을 7회 피아노의 섬 페스티벌 개최일로 정하였으나, 하늘연달에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섬, 대한민국 문화 다양성의 보고-1004섬, '예술'로 날다」 라는

주제로 신안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피아노의 섬 축제를 문화의 달 행사기간(10월)에 선보일 계획이다.

축제기간 동안 100+4대의 피아노가 함께 자은도 뮤지엄 파크 일원에서 연주될 것이며, 정상급 피아니스트의 공연과 함께 방문객에게 피아노 연주 기회를 주어 아름다운 피아노 향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안=이명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